

#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Residential Characteristics, Values, and Social Networks to Stress among Low-Income Family Wives\*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정문자  
강사 이미리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어주경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Lecturer : Lee, Meery*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oseo Univ.  
*Lecturer : Eo, Joo Kye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irst, socio-economic,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for their future life among low-income family wives. Second, the relationship of these characteristics to the wives' stress was examined.

The subjects were 249 mothers of urban low-income families whose children attended one of 20 daycare centers located in poor residential areas. The instruments included Social Network Scale, Home Stress Scale, and Occupation Stress Scal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frequencies, paired t-tests, a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We found that a majority of the mothers and their husbands had high school educational status and simple labor or sales/service work status. They lived in rental houses or apartments. Their families of origin were a major source of emotional supports. Insufficient income for non-employed wives, long work hours and lack of free time for employed wives were a major stress. Levels of the wives' home-related and job-related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ir own and their husbands' work status.

\* 본 논문은 1997년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I. 서론

오늘날 도시 저소득층 가족은 중류층 가족에 비해 사회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으며, 취약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소득 면에서 가구주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다른 가족성원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부인의 취업이나 부업이 가구 소득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족 주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취업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안진, 김연진, 1993; 정현희, 최경순, 1996; 조희금, 1993).

저소득층 가족의 주부가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저소득층 가족의 취약한 사회경제와 주거상황, 주부의 취업실태, 그리고 의식구조 특성과 분리되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들 삶의 어느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 취업구조, 주거와 소비양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박혜인, 1992a, 1994)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 상호작용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오선주, 1990; Parish, Hao, & Hogan, 1991)과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기능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들(고정자,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0)을 참고하면, 저소득층 가족 주부의 스트레스나 대처 전략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으로 가족의 제특성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 특성 파악과 함께 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사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 어떠한가?

둘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주거환경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넷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떠한가?

다섯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

여섯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주거환경, 미래생활에 대한 견해 및 사회적 관계망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도시 저소득층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계급 범주로서, '소외 및 배제'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영석, 1985).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본격적인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절대적 빈곤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으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과 소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전반적인 양상이 절대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모, 1990; 노인철, 어운배, 이성기, 김용하, 김미갑, 전학석, 이상은, 석재은, 1995).

본 연구에서의 도시 저소득층이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소득과 교육, 그리고 자원활용 등의 기회가 제한되는 특성을 공유하며 도시 빈곤 지역에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개념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1.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도시 저소득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일반 가구

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생활보호 제도법에서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연령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정복란, 이성기, 김미곤, 허선, 1991). 박순일(1991)에 의하면 도시 저소득층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무학을 포함한 국졸이하가 73.8%이며, 고졸 이상자는 11.2%로 나타났으나, 통계청 자료(1991)에서는 일반가구의 학력이 국졸이하가 33.4%, 고졸이상자가 47.6%로 보고된 바 저소득층 가구주의 학력이 저학력에 편중되어 있다.

도시 중산층 가구주 직업의 80% 정도가 전문기술 등의 인적 자본에 바탕한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여(노인철 등, 1995) 계층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생산성 노동을 대표하는 반숙련과 단순노동,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30-40%의 높은 수준이나, 자영업 종사 비율이 증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행상, 노점상, 단순서비스 등 일정한 일거리 없이 떠도는 빈곤층의 비율이 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업종으로 전환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에 의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놀라운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는데, 저소득층의 여성가구주는 평균소득이 남성가구주의 62%에 불과하며 평균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상태에 빠지기 쉬운 취약한 가구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노인철 등, 1995).

1989년 국토개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400,700원인데 비해 도시일반가구는 804,900원(통계청, 1990)이었으며, 저소득층은 지출 중 식품비의 지출이 43.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1991년 6월에 보고된 저소득층의 앵겔지수는 전도시가구의 앵겔지수에 거의 접근하고 있어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가구의 먹고사는 생활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박순일,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계를 보충하고 최저생활

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도시 저소득층 가구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저소득층 부채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와 의료비로 나타났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결과적으로 한정된 소득 수준에서 높은 비율의 부채상환은 다른 여러 소비지출의 억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복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2) 주거 환경 특성

박신영(1990)의 저소득층 주택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주택의 자가 비율이 27.1%, 전세가 53.0%, 사글세가 19.9%로 나타나 5년전에 비해 자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 오히려 전세의 비율은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주거 소유 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자기 집을 소유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마음에 들면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므로 주거비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로 집약된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저소득층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주택이 부족한 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점도 있으나, 주택 금융지원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서 융자금을 갚아 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불량주택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방을 얻어 사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부조적인 취업망을 통해 불안정하지만 용이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주택이 질적인 문제로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의하여 철거되고 있는 점도 저소득층의 주택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3)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미래생활에 대한 태도를 비교 연구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의 조사에 의하면 미래생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저소득층의 경우

23%, 중산층의 경우 17.5%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미래 생활에 대해 더욱 낙관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최저생활 이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회의 학력 중시 풍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이란 도구적, 정서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 연관된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체를 말하며(Cochran & Brassard, 1979), 이는 가족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중류층의 자녀는 결혼 후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형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Sussman & Burchinal, 1962; Parish, Hao, & Hogan, 1991).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있어서 계층간의 차이를 본 국내 연구에서 오선주(1990)는 관계망의 주요 구성원에 있어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 구성원으로서 친정이 가장 높은 비율(37.7%)을 나타냈고, 이웃(17.9%), 시가(16.0%), 종교집단(15.1%)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영익(1995)은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 친족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친구와 이웃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일상생활에서의 일손의 도움 등의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주희(1992)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은 중류층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저소득층 가족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족 특성과의 관계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활력을 주고 일에 대한 추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특

성도 있으나, 개인이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지적으로 평가되는 내적, 외적 요구'라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정의이다. 이들 정의에 의하면 개인이 어떠한 자원을 가졌는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인간 생활에 대한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으며, 가족에서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즉 생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배경이나 상황들이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작용하더라도,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분석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족의 특성, 건강, 사회적 지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주부의 다중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특히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집일수록 주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의 자원이 많았으며, 비취업 주부일 때 가족의 자원이 많았는데, 가족의 자원이 많을수록 주부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다(전세향, 1988).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라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취업주부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고정자, 1994; 고정자, 김갑숙, 1997), 이는 취업으로 인한 주부의 다중역할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 주부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남편의 가사 참여가 적을수록, 그리고 취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전문직 취업 주부의 경우 친구나 친척, 이웃

등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때 심리적인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1997). 반면 비취업 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 참여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중류층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과 빈곤이라는 계층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부(김인숙, 1992)에게도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어떠한 자원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저소득층 주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인지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 공장지역 그리고 고지대에 위치한 20개<sup>1)</sup>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육료 감면대상자, 월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인 249 가족이었다. 이들 가정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연령범위는 22세-55세), 남편의 평균 연령은 36세(연령범위는 23세-51세)이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4종류로 다음과 같다.

##### 1) 가족배경 변인 측정 질문지

가족의 인구론적 정보를 포함하여 주거환경과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자들이 만든 것이며,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사회적 관계망 측정 척도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과

이들 구성원에게서 받는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은혜와 이미리(1996)의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5명까지 적고, 각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 정도를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예: 1: 전혀 없다, 2: 때때로 있다, 3: 자주 있다, 4: 항상 있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여섯 가지 종류의 지원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지원 내용은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금전적 도움, 물질적 도움, 집안일 도움, 자녀 양육 도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으로 부터의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 3) 가정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 척도

가정 스트레스 척도는 20문항, 직업 스트레스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사에 관한 것이다. 이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에서 개방식 질문을 통해 보고된 내용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예: 1: 전혀 아니다, 2: 별로 아니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가정 스트레스 척도 20문항에 대한  $\alpha$ 계수는 .74, 직업 스트레스 척도 18문항에 대한  $\alpha$ 계수는 .87이었다.

#### 3. 연구 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저소득층 가족의 가족배경 변인과 사회적 관계망 측정 척도 문항들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주부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완성하기 위해 1997년 3월~5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면접(9부)과 설문지(300부)를 통해 주부

1) 20개 어린이집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구로구 구로 5동, 성동구 하왕십리동, 강서구 가양동과 등촌동, 관악구 봉천동, 마포구 상암동, 그리고 성남과 부천에 위치하고 있다.

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은 수정되었으며, 필요한 문항은 첨가되었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1997년 7월-9월에 걸쳐 연구 대상에서 기술한 서울·경기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20개소를 통해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거나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3개 어린이집의 어머니 63명과 면접은 본 연구자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 당 약 50분이었다. 나머지 17개 어린이집에 질문지 309부를 배포하였으나 192부가 회수되어 62.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6부를 제외한 186부와 면접을 통한 63부의 질문지를 합하여 총 249부가 분석되었다.

## 4. 자료 분석

연구 대상 주부 가족의 제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및 지원 기능, 그리고 저소득층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의 단순통계를 사용하였다. 저소득층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른 가정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t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 IV. 결 과

### 1.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도시 저소득층 가족 부모의 교육수준으로는 고졸이 주부와 남편 각각 55%와 53%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은 21%와 13%로 그 다음 순위였다. 연구 대상 주부의 약 68%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단순 근로직이 각각 27%, 26%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술직에도 21%가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은행원, 회사원과 같은 사무직 종사자는 약 15%이었다. 한달의 수입으로 50만원 이하가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만원에서 70만원이 33%였다.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 등 자녀양육 문제가 15%,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이 10%로 나타나 주로 직장 생활에 관한 문제보다는 육아와 가사일, 그리고 주부 개인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의 종류를 보면 1/3 이상이 기사나 전기 수리공과 같은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단순근로자는 17%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101만원 이상이 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1-100만원(18%), 71-80만원(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7%이었다.

가구 월소득은 남편의 월소득과 주부의 월소득을 합친 것으로 연구 대상 가족의 57%가 월소득이 91만원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나, 1/3정도(37%) 가구의 월소득이 91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에 참여해도 소득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의 한 달 총 지출은 대다수인 76%가 100만원 이하로 보고하였는데, 50만원 이하(16%)는 단일 급간으로 최빈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출을 최소화하여도 과반수 이상(57%)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3정도가 6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빚을 진 이유는 사업의 실패가 가장 많았고(28%), 그 다음으로 생활비 부족(21%), 전세 보증금 마련(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빚을 얻는 방법은 주로 이웃이나 친구에게서 빌리고 있었으며(30%), 신용카드를 쓰거나(25%), 부모나 친척에게 달라고 하거나 빌리는 것(21%)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 주부의 결혼상태는 대다수(84%)가 남편이 있었고, 나머지 16%는 이혼(6%), 사별(5%), 별거(3%) 상태였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평균 8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족수는 4.7명으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는 1.9명이었다.

## 2) 주거 환경 특성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집의 형태로는 아파트가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주택(26%)과 다세대주택(17%)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많은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거주자가 많이 표집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평균 3년 이상을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현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집세가 적당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31%), 그 다음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12%)이라고 하여 경제적인 이유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관계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10%였다. 또한 같은 고항사람이 살거나 가족, 친척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약 7%가 되어 사회적 관계망도 주거지역을 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보여 주었다. 그 외에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 때문과(3%) 교통이 편리한 점(1%) 등도 이유로 보고되었다.

이들의 주택 소유상황은 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6%이었다. 집의 면적은 평균 14평(범위 = 4평-46평)으로 11평에서 15평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5평 이하 또는 36평 이상에 사는 가구도 각각 2%로 나타났다. 방의 개수는 평균 2개였으며,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5개의 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내집 마련과 관련된 의식으로서 저소득층 주부의 70%가 내집 장만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였으며, 대상 주부의 약 41%가 3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야 집 장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저축(33%)과 은행의 융자(25%)라고 하였다.

## 3)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

미래 생활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79%)가 앞으로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서 대다수(72%)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본인이나 남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

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20%)이라고 하여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의 결과 안정된 생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자녀의 덕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경우는 2%에 불과했다. 한편 앞으로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부들은 자신이나 남편의 건강과 능력에 한계가 있고(43%), 스스로 노력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23%)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녀 교육을 충분히 시킬 능력이 없다(14%)는 점도 지적되었다.

저소득층 주부들은 자녀교육을 집장만에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자녀가 아들인 경우 어머니의 77%가, 딸인 경우 어머니의 72%가 자녀를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기를 기대하였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직업으로서는 자기 적성에 맞는 혹은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면 좋겠다고 한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29%) 그 다음으로, 교사나 연구직(12%), 그리고 공무원(10%) 등으로 특정 전문직보다는 자녀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성향을 보였다.

## 4) 사회적 관계망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249명 중 사회적 관계망 측정 척도에 반응한 응답자는 181명이어서 이들의 자료만이 분석되었다.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은 크게 5범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남편, 둘째는 친정식구, 셋째는 시댁식구, 넷째는 이웃과 친구이며, 다섯째 범주는 직장 동료, 종교인, 교육관계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5개 범주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저소득층 주부들(47%)이 친정식구를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구성원으로 꼽았고, 다음이 이웃과 친구(21%), 시댁식구(17%), 남편(12%), 그리고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2%)순이었다. 범주를 떠나 연구 대상자들이 뽑은 주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는 친정 여형제(19%), 친정 어머니(17%), 남편(12%), 그리고 친구(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주는 6가지 지원 기능을 살펴 본 결과, 도시 저소득층 주부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으며(평균 3.01), 그 다음으로는 정보제공(평균 2.60), 물질적 도움(평균 2.16), 금전적 도움(평균 2.07),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평균 2.00)의 순이었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지원(평균 1.72)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기능 수준에 있어서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특히 저소득층 취업주부에게 자녀양육과 집안일의 지원이 부족함으로써 가사일이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이 각기 어떤 지원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부들이 보고한 주요 관계망 구성원을 순위별로 6위까지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남편은 물질적 도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다른 구성원에 비해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지원 순위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 정보 제공에서는 친구의 도움이 컸고, 금전적 도움에서는 친정어머니와 친정여형제의 지원이 컸으며, 물질적 도움은 친정어머니가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사일과 자녀 돌보는 일에서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스트레스

도시 저소득층 가족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취업주부는 가정 스트레스 척도와 직장 스트레스 척도에 모두 응답하였고, 비취업 주부는 가정생활 스트레스 척도에만 응답하였다.

### 1) 가정 스트레스

저소득층 주부들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하위요인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정 스트레스 총점의 문항 평균 점수와 7가지 하위 요인별 문항 평균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저소득층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가정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것과 약간 받는다는 사이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하위 요인 별로 보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행동,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다고 하였다. 그 외 주부 스스로를 위한 시간, 예를 들면 쉴 시간이 없다는 것에서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인지 수준에 있어서 취업 주부와 비취업 주부들 간에 차이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별 스트레스 수준의 순위에 있어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취업주부가 비취업 주부에 비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부담( $t=2.89, p<.01$ )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t=2.04, p<.05$ )는 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1> 연구 대상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지명 순위 및 지원기능 점수

(사례수=247)

순위	관계망 구성원	정서적 지원	정보제공	금전적 도움	물질적 도움	가사일 도움	자녀 돌봐줌
1	친정 여형제	3.1	2.6	2.0	2.1	1.5	1.7
2	친정 어머니	3.1	2.6	2.0	2.6	1.7	2.0
3	남편	3.4	2.9	3.3	2.0	2.6	2.9
4	친구	3.2	2.9	1.6	1.6	1.2	1.5
5	시어머니	2.6	2.3	1.9	2.5	2.0	2.2
6	이웃	3.0	2.7	1.7	2.2	1.4	2.0



〈표 2〉 가정 스트레스 요인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247)

가정 스트레스 요인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	2.65	.85
요인 2: 남편과의 갈등	1.75	.87
요인 3: 나만을 위한 시간 부족	2.59	.89
요인 4: 가족의 건강문제	1.78	.84
요인 5: 자녀의 부정적 생활습관	2.08	.87
요인 6: 자녀의 부정적 행동	2.90	.83
요인 7: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족	3.16	1.0
전체	2.30	.48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직업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는 직장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평가한 것으로 취업주부 166명이 답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직장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러나 4개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자유시간부족으로 인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주거환경,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 및 사회적 관계망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들간에 상관의 정도가 .50이상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변인 2개 중 1개만을 택하여 회귀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중다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생기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혼상태,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 및 남편의 직업종류, 집 소유 여부, 주택 마련에 대한 중요성 지각 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5가지 지원기능 수준 등 18개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분석결과 스트레스 변인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독립변인들만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족 주부의 가정 스트레스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과 주부의 직업종류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되었다. 독립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족 주부들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가정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인지하였다. 또한 주부의 직업이 단순 노동직일수록 가정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았다. 이들 두 변인은 가정 스트레스 점수 변량의 52%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표 3〉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166)

직업 스트레스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과도한 근무시간과 자유시간 부족	2.44	1.06
요인 2: 취업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 태도	1.76	1.27
요인 3: 직장의 불안정성, 무발전성	1.80	1.04
요인 4: 과도한 업무량과 부당한 대우	2.09	.84
전체	1.94	.76

〈표 4〉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사회경제 및 심리적 특성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F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주부의 직업종류	종속변인: 가정 스트레스(n=247)			
	-.50	-2.54**	.52	6.95**
남편의 직업 종류 주부의 직업종류	종속변인: 직업 스트레스(n=166)			
	.69	3.17**	.53	6.13*
	-.51	-2.35*		

\* p &lt; .05, \*\* p &lt; .01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직업 스트레스 인지 수준은 본인과 남편의 직업 종류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면 가정 스트레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부의 직업이 단순 노동직일수록 직업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남편의 직종은 주부의 직업 스트레스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즉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주부들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 1.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

본 연구대상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각각 55%, 53%로 가장 많았는데, 1991년 박순일의 조사에서 국졸이하가 74%였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저소득층의 학력이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가구의 학력이 91년에 국졸이하 33%, 고졸이상 48%이었던 것이 95년에는 28%, 57%로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향상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연구 대상 주부의 68%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종을 살펴보면 대부분(75%)이 단순근로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직장생활을 평균 2년 정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직업의 불안정한 고용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족의 남편 직업을 살펴보면 62%가 단순근로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였고, 무직은 6%였다. 이는 부인의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장차 고기술, 고숙련을 요하는 직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저학력, 저기술로 인한 직업적 제한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예상될 수 있다.

취업주부들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임신, 출산 등 자녀 양육문제와 본인의 건강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중류층 취업 여성이 휴가일수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직장 생활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문숙재, 김순미, 윤소영, 1996)와 다르다. 즉, 저소득층 취업 주부들은 직장과 관련된 근무 환경이 아닌 자녀 양육이 취업 생활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주부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탁아기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이들의 취업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가구의 월지출을 살펴보았을 때, 단일 급간으로 최빈치인 16%가 5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는 37%의 가구가 90만원 이하의 월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이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가구가 사업실패나 생활비 부족, 전세 보증금 마련 등의 이유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8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에서 생활비 부족이 빚을 지는 주된 이유이고, 그 다음이 주택문제나 교육비 부족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저소득층의 가정 경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실패로 인한 빚이 부각된 점은 최근의 사회,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크게 기인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있겠다.

거주 환경의 특성으로서는 연구 대상 가구 중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적었으며(6%), 거의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금과 월세금의 인상 등에 따른 주거유지 부담의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이 다른 생활분야에서의 최저생활유지도 위협하여 빈곤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순환고리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이 부채를 지게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 보증금 마련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활에서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의 대다수(79%)가 앞으로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서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자녀에게 대학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아들에 비해 딸의 교육수준을 낮게 기대하던 것이 지금은 아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학력수준이 낮음과 조건이 좋지 못한 취업 상태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김영모, 1990) 자녀가 공부를 잘 해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사회적 관계망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가장 많은 수의 주부들이 친정여형제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친정 어머니, 남편, 친구, 시어머니, 이웃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에 관계 없이 주부들이 친정 식구들을 주요 관계망으

로 여기고 있다는 오선주(199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계망 구성원을 보았을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중류층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을 살펴 본 이은혜, 이미리(1996)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중류층 주부들이 친정어머니가 주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이라고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에 있어서 도시 저소득층 주부들과 중류층 주부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혜인(1992b)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가족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모 부양의 사례가 적으며, 상호간 경제적 교환도 저조하고,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은 노후에도 불가피하게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저소득층 주부들이 부모보다 여형제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은 정서적 지원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주부들이 주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김영익, 1995; 김주희,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0).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살림도구를 내 것 같이 공유하고, 서로의 직장을 알선해주며,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저소득층 주부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 형태의 지원 기능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소득 정도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대상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조은, 조옥라(1991)의 연구 대상은 철거민으로 본 연구 대상보다 낮은 소득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환경에 있으므로 이웃으로 부터의 물질적인 도움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 기능별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 주부들은 정보제공 기능을 주로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대개의 경우 친구, 이웃 혹은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보고한 남희용(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주로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남편의 지원정도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중류층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이은해, 이미리, 1996)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부들이 다른 관계망 구성원들보다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도 중류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신숙재, 1997)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 저소득층 주부의 관계망 구성원이 제공하는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중류층 주부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사회경제적, 주거환경, 미래 생활에 대한 견해 및 사회적 관계망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저소득층 주부의 가정 스트레스 수준은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금전적 도움과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즉 금전적인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주부의 가정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절실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중의 하나인 생활비 부족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데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취업주부의 경우 주부 본인의 직업이 사무직일수록 가정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즉 단순근로직이나 고용판매직, 서비스직보다는 자영업이나 사무직일수록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이는 육체적인 노동이 주를 이루는 단순근로직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용판매직의 직업상의 특성으로 신체적인 고단함과 휴식의 불충분함이 직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및 가사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주부의 직업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결과를 보인 것은 남편의 직업의 종류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 또는 사무직일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가정의 부채액수도 많았다. 앞서 언급된 바 빛을 진 이유로 사업실패가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는데, 빛의 액수가 큰 경우 남편의 직업은 주로 자영업이었다. 따라서 저소득층 취업주부는 남편의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동시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해 직업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주부일수록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자원이 많으며, 가족 자원이 많을수록 또한 이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부의 스트레스가 적다고 하였다(전세향, 1988; 전영자, 1997).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저소득층 주부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 기능이 중류층 주부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중류층에서 나타나는 관계망 지원 기능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본 연구 대상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된 스트레스원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정서적 지원 기능을 주로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보다는 오히려 소득과 직접 관련된 직업 수준이 이들의 스트레스 변량을 설명하는 더 좋은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시와 경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표집함으로써 중소도시, 신흥공업도시, 그리고 농촌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이 배제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 수집에 있어 연구 대상들의 의향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무응답과 잘 못 기재한 사항들이 소수 발견된 것을 참조하면 추후연구들은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면접을 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특성 파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1) 고정자 (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2) 고정자, 김갑숙 (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2.
- 3)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연구총서 7.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4) 김영석 (1985). 도시빈민론. 서울: 아침.
- 5) 김영익 (1995).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주택 주민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김인숙 (1992).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 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 27-56.
- 7) 김주희 (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친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155-182).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논문집.
- 8) 남희용 (1990). 도시 저소득층과 빈곤문화.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9) 노인철, 어윤배, 이성기, 김용하, 김미갑, 전학석, 이상은, 석재은 (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 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5-0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문숙재, 김순미, 윤소영 (1996). 취업 여성의 노동 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99-112.
- 11) 박순일 (1991).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요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박순일 (1992). 사회복지 제도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박신영 (1990).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박혜인 (1992a). 현대사회와 도시저소득층 가족.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7-28). 서울: 하우.
- 15) 박혜인 (1992b). 한국사회의 도시 빈곤가족. *가족학논집*, 4, 157-173.
- 16) 박혜인 (1994).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 생활 실태 파악 및 가족 복지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179-191.
- 17)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8) 오선주 (1990).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 19) 유안진, 김연진(1993).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20) 이은혜, 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 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21) 전세향 (1988).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2)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6.
- 23) 정복란, 이성기, 김미곤, 허선(1991).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4)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25) 조은, 조옥라 (1991).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 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26) 조희금 (1993). 생산직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27) 통계청 (1990). 도시가계연보. 서울: 통계청.
- 28) 통계청 (1991). 도시가계연보. 서울: 통계청.
- 29)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30) 한국여성개발원 (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1990년도 연구보고서 200-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31)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32)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33) Parish, W. L., Hao, L., & Hogan, D. P. (1991). Family support networks, welfare, and work among young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03-215.
- 34) Sussman, M. B., & Burchinal, L. (1962). Kin family network: Unheralded structure in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family functioning.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3), 231-240.